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는 일본기업의 해외조달

엔高, 동일본 대지진, 태국의 홍수 피해 등을 배경으로 일본기업들의 글로벌조달이 가속화되고 있음. 환율변동이나 재해에 강한 조달망을 구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달규모의 확대와 함께 조달처를 다양화하고 있는 점이 특징임

□ 일본기업들의 글로벌조달이 가속화되고 있음. 도시바의 경우 해외 조달비율을 60%에서 70%로 늘릴 계획을 2년 앞당겨 2011년도 중에 달성한다는 방침. IHI는 발전용 보일러의 조달기능을 싱가포르로 이관, 후지중공업은 신형차에 한국산 램프를 사용

- 이런 대책은 엔高, 동일본 대지진, 태국의 홍수 피해 등의 영향으로 조달처를 다양화하여 환율변동이나 재해에 강한 조달망을 구축하기 위한 방편

□ 도시바의 사례

- 도시바의 경우, 부품소재 등의 조달규모는 매출액의 절반정도이며, 2010년도 약 3조 3,000억엔으로 이 중 60%를 해외에서 구입. 원래 2013년도까지 70%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2년 앞당기기로 하였으며, 2011년도 해외조달규모는 2010년도에 비하여 약 5,000억 엔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이와 병행하여 조달거점도 확충할 계획임. 현재는 미국, 영국, 중

국 등 7개국에 총 10개소에 거점을 가지고 있으나 러시아, 이집트, 베트남, 브라질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거점을 신설, 2014년도 말까지 16개국에 20개소를 확대할 방침임

- 해외조달담당자는 2014년도에 현재보다 60% 많은 275명으로 증원. 나아가 100억엔 이상을 들여 전 세계의 조달시스템을 2014년도까지 통합할 계획
- 도시바가 직접거래하는 1차 서플라이어만이 아니고 그 기업이 거래하는 2차 서플라이어, 기타 3차 서플라이어까지 거래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서플라이체인의 붕괴 위험에 대비한다는 방침

□ IHI의 사례

- IHI는 금년중으로 보일러부품의 조달담당직원 수십명을 싱가포르에 이동시킬 계획. 부품메이커사무소가 밀집해있는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활용함으로써 가격이나 품질면에서 유리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발전용 보일러는 아이오이공장(효고현 아이오이시 소재)에서 설계·제조, 일본을 중심으로 약 500개사와 거래하고 있음. 총비용에서 점하는 엔화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엔高로 한국이나 유럽기업들과의 구매상담 전수가 증가하고 있음

□ 후지중공업의 사례

- 후지중공업은 금년중으로 전면 개량하여 발매하는 신형 「인프렛사」용 램프를 현대모비스로부터 조달, 연간 10만대 규모로 발주예정.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부품조달망을 개척하여 2015년까지 자동차부품의 해외조달비율을 현재 13%에서 30%로 높일 계획임

□ 소니의 사례 : 생산위탁

- 소니는 공장이 없는 이른바 무공장 경영에 착수. 1990년대 초 일본에 약 40개에 달했던 소니공장은 현재 23개로 축소. 그중 16개 공장이 부품공장으로 TV, 비디오카메라 등 최종제품의 조립공정은 7개뿐임. 제조공정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어렵게 된 TV는 생산위탁, 생산위탁비율은 2010년 3월 20%에서 2011년 3월 50%로 급상승

□ 이른바 조달개혁에 박차

- 국민경제에의 파급효과가 큰, 이른바 스소노산업(총체적 산업)의 일본내 집적은 일본기업의 강점이나, 엔高에 가세하여 조달처마저 특정 기업이나 장소에 집중되게 되면 대규모재해로 인해 서플라이체인이 단절되는 경우 생산이 정지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음
- 1995년도 8%에 불과했던 제조업의 현지생산비율이 2010년도에 과거 최고 수준인 18%까지 상승한 적이 있음. 대내외적인 생산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경쟁력있는 해외부품 확보와 대체부품을 유연하게 융통할 수 있는 체제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조달개혁을 서두르고 있음

□ 시사점

- 종래에는 일본기업의 해외조달과 관련하여 주로 엔高요인에 의한 해외조달 확대와 이를 대일 수출확대의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에 주목했음
- 물론 이러한 측면은 앞으로도 일본의 하청·계열시스템과 같이 외국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

한, 엔高를 대일 수출확대의 기회로 삼고 여기에 대일수출마케팅 강화노력을 동반시킴으로써 엔高의 과실을 극대화시켜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음

- 이를 위해서는 경쟁국들과의 일본시장점유율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노력은 물론, 일본의 내수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만 엔高에 따른 잠재적인 일본의 해외조달확대분을 가시화시킬 수 있을 것임
- 한편, 엔高요인 외에 재해에 대비한 부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조달처의 다변화 차원에서 해외조달을 늘리고 있는 점에도 주목하여 이와 관련된 대일 수출확대 방안이 필요

<참고자료>

日本經濟新聞(2011.11.2)외